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5. 3. 4.(화)

자료문의 : 마약·조직범죄부

전화번호 : 02-3480-2290

주책임자 : 마약과장 이태순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개최

- 진화하는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검찰 수사역량 강화 -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마약·조직범죄부장 노만석)는 오늘(3. 4.) 대검찰청에서 전국 마약전담 검사 37명과 함께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25년 전국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워크숍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일선청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①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추적 수사기법, ② 마약류 밀수범죄수사 및 국제공조수사 기법, ③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기법, ④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검찰의 '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설정하고, 마약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통해 수사 현장의 의견이 검찰의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은 워크숍 참석 검사들에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충실해야 하는 역할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마약범죄는 민생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발전시켜 마약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그와 함께 마약 투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등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5. 3. 4.(화) 10:00~17:00, 대검찰청 NDFC 6층 대강의실
- **참석자(총 42명)**
 - (대검, 5명) 마약·조직범죄부장,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마약과장, 검찰연구원 등
 - (일선청, 37명) 전국 18대 지검 및 16개 지청 마약범죄 전담 검사
- **개최 취지** : 워크숍 개최를 통해 검찰의 마약정책에 따른 수사방향 지시, 수사기법 전수, 수사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및 수사지원 등을 위함
- **주요 내용** : ①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추적 수사기법, ② 마약류 밀수범죄수사 및 국제공조수사 기법, ③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기법, ④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방안 등 논의

2

워크숍 개최 배경

▣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한 확산

- '24년 단속 마약사범은 23,022명으로 '23년 최초 2만여 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 상회, 수사기관의 단속 노력으로 전년(27,611명) 대비 16.6% 감소하였으나, SNS·다크웹·가상자산 등 이용 신종 범죄 증가
 - ⇒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증가, 마약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일종의 사업 활동처럼 지속화되는 경향 확인
-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

구분	'19	'20	'21	'22	'23	'24
30대 이하 사범(명)	7,886	9,322	9,623	10,988	16,528	14,645
비중(%)	49.1%	51.6%	59.6%	59.7%	59.9%	63.6%

⇒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 확산은 미래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들에게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해외사례와 같이 향후 우리 사회 마약 문제가 더욱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 신호임

-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4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3,232명으로 전년(3,151명) 대비 2.6% 증가

구분	'19	'20	'21	'22	'23	'24
외국인(명)	1,529	1,958	2,339	2,573	3,151	3,232
증감율(%)	▲61.3	▲28.1	▲19.5	▲10.0	▲22.5	▲2.6

▣ 마약류 범죄 수법의 진화

- (온라인 비대면 거래방식의 일반화) 정보통신 기술발달, 스마트폰 보급·대중화로 인해 텔레그램·다크웹 등 익명성 높은 SNS가 등장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약거래 유통패턴이 대면거래 방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소위 '던지기' 방식)로 변화
 - SNS 온라인 공간이라 판매자 비노출로 인해 판매자 특징이 어렵고, 전통적인 '상선추급' 방식의 종래 수사기법으로는 검거에 한계
 - 국내 판매자 등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을 향유하는 주범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례 다수 확인

※ 온라인 마약류 거래 사례 - 서울 남부지검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사건

- ▶ 서울 주요 명문대를 포함한 약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한 사건
- ▶ 피의자들은 마약수사 대비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구독자 약 9천 명)에서 '휴대전화 자료 영구삭제 등 포렌식 대비' 등 대비법을 공유

- (마약류의 국내 유입 급증) '24년 한해 압수된 마약류 1,173.2kg 중 해외에서 유입된 경로가 확인된 마약류가 약 687.9kg으로 전체 압수량의 58.6%를 차지
 - 특히 야바는 태국·라오스 궤이 대부분으로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밀수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의 신원 불확실, 주거 불분명 등으로 검거가 어려운 상황임

- (국내 마약류 제조 수사) 최근 국내 마약 제조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수사과정 중 마약류 제조와 관련된 단서와 정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마약류 제조 여부 확인 필요

▣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 등 검찰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온라인 마약 유통범죄 단속시스템 구축) '24. 1.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5. 「AI 다크웹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정 등 새로운 단속시스템 도입,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일선청과의 긴밀한 소통 필요
 -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과 수원지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유통범죄 집중단속 실시 예정
-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 유입의 선제적 차단) 마약발송국 현지 마약 수사기관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하여 발송책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현지 정보수집·공조범위를 확대하여 시스템화된 공조망 구축 예정
 - 일선청 수사과정에서 마약 밀반입 상선 관련 단서확보시 대검과 신속하게 공유하여 현지에서도 실시간 공조수사를 진행 필요
- (외국인 전용 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 최근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집단 매매·투약을 하고, 이를 위해 밀수입까지 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활용, 합동단속 추진 예정

- ▶ 본국(주로 태국, 베트남) 해외 공급선으로부터 식료품, 의류 등으로 가장한 마약류를 국제우편 등으로 대량 직수입
- ▶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으로 신고 후 업태를 위반하여 자국민만 출입 허용, 마약 투약하는 폐쇄적 운영으로 수사·단속의 사각지대
 - ☞ 철문, CCTV로 주변 경계하며 출입 허가된 동반자 인솔하에서만 출입가능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개선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통한 수요 억제) '24. 4. 식약처, 법무부, 복지부 협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전면 개편, '개인별 중독수준에 맞는 체계화된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도입, '24. 11. 전국 확대 시행 완료
- '25. 의뢰 대상자 상대 단약 성과 확인 및 일선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보완·개선하여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을 통한 마약류에 대한 수요 감축 지속 추진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요

- ▶ 중독전문의, 중독·심리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안, 대상자는 치료보호기관과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치료·재활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조건 이수

3 의의 및 향후 계획

- 검찰은 지금이 마약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SNS, 다크웹, 가상자산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하여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음
- 또한, 검찰은 전국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마약 공급·유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등 단순 투약자에 대하여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용 등을 통해 치료·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음
- 위와 같이 검찰은 공급망을 철저히 단속하고 마약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